

벗나무 갈색무늬구멍병의 방제시험

(공동연구, 2014)

권건형, 오준식, 이민섭, 정윤미, 김선화

요약

벗나무 갈색무늬구멍병은 자그마한 구멍이 뚫리고 노랗게 변하면서 일찍 떨어져 나무의 수세를 약화시킨다. 봄에 비가 자주 오거나 나무가 쇠약할 때 많이 발생한다. 이런 피해를 줄이고자 효과가 우수한 약종 선발 실험을 실시하여 디페노코나졸 수화제가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약제등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.

I.서론

벗나무 갈색무늬구멍병 잎은 5 ~6월부터 잎에 자그마한 자갈색 반점이 나타나고, 점차 확대되어 1~5mm 크기의 둥근 갈색 반점이 된다. 병반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며 병반과 건진부의 경계에 이층이 생겨 병반이 떨어져 나가 작은 구멍이 생긴다. 갈색 병반 위에는 솜털 같은 회갈색 분생포자덩이로 뒤덮인 작은 점(분생포자좌)이 나타난다. 오래된 병반중앙부에는 암회색의 분생포자가 형성되고, 심하면 그 중앙부의 조직이 괴멸되어 구멍이 뚫리기도 한다. 심하게 진전되면 잎 전체가 마르고 떨어진다.

이번 실험을 통해 벗나무 갈색무늬구멍병의 피해 방제를 위해 약제 선발 실험을 실시하였다.

II.재료 및 방법

1. 약제 방제 시험

- 가. 장 소 :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,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
- 나. 처리시기 : 2014.05.09, 19, 29 (3회살포)
- 다. 시험방법 : 2종의 약제를 수관살포
- 라. 시험약제 : 디페노코나졸 수화제, 플루아지남 수화제
- 마. 효과조사 : 2014년 6월1일, 4일, 12일 (약제처리 후 3,5,7일)